

05.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섭리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 희망의 행위로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자유의 책임 있는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섭리는 그리스도인을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께 대한 자녀로서 신뢰의 태도로 이끈다.

1. 서론: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가?

하느님의 섭리를 묘사하는 성경적 이미지를 진정으로 왜곡하는 종교 행위들이 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거의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신들을 잊으신 것처럼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일어난 나쁜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고, 불편한 상황을 끝내 달라는 긴급한 개입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이른바 '구멍 메우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느님을 왜곡하는 진정한 회화화다.

이러한 표상들 너머에서, 하느님의 개입이 우리 세계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후 물러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실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하느님께서 특히 사건들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때 어느 순간에는 개입하신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취약하고 부패한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견해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이끌 수 없는 창조주의 전능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마지막 견해가 옳다면, 행위 안에서 피조물들의 자율성과 자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2. 섭리와 보존

창조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in statu viae*, 즉 아직도달하지 못한 궁극적 목표를 향해 만드셨다. 따라서 창조는 시작에 국한되지 않는다. 창조된 후에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그 자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피조물에게 존재와 생존을 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존재 안에 유지시키시고, 활동하게 하시며, 목적지로 이끄신다”(교리서, 301).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이 활동을 창조 행위와 비교한다(이사 44,24; 45,8; 51,13 참조). 지혜 문학은 피조물들을 존재 안에 유지시키는 하느님의 활동을

명시한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지혜 11,25). 성 바오로는 더 나아가 이 보존 활동을 그리스도께 귀속시킨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콜로 1,17).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작품을 완성한 뒤 그것에 개의치 않는 시계 장인이나 건축가가 아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념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창조주 하느님을 왜곡하는 것이다. 창조와 신적 세계 보존 및 통치를 급격하게 분리하기 때문이다. 이신론은 창조의 형이상학적 개념에서 오류를 범한다. 존재를 선사함으로서의 창조는 피조물 쪽에서 존재론적 의존성을 수반하는데, 이는 시간 속에서의 존속과 분리될 수 없다. 둘 다 하나의 동일한 행위를 구성하며,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사물들을 보존하시는 것은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것 들에게 존재를 주시는 동일한 행위의 연속이며, 이는 움직임이나 시간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존의 개념은 창조 행위와 세상에 대한 신적 통치(섭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존재 안에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을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부르신 궁극적 완성으로 이끄신다”(요약, 55).

3. 성경 안의 섭리

성경은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제시하며, 가장 작은 일들에서도 큰 역사적 사건들에서도 하느님의 부성적 돌봄을 끊임없이 증언한다(교리서, 303 참조). 창조주의 권위('다스리심')는 아버지의 배려('돌보심')로 표현된다. 고대 신경들은 그리스어 *판토크라토르*(Pantokrator)라는 용어로 통치 측면을 언급하는데, 이는 목자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 이해되어야 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시편 23[22],1). 신적 돌봄과 권위는 지혜에 의해 주재된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fortiter*) 퍼져 가며 만물을 훌륭히(*suaviter*) 통솔한다”(지혜 8,1).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행동과 가르침으로 이 시각을 확인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섭리가 '육화된' 분으로 드러나시며, 선한 목자로서 인간의 물질적·영적 필요를 돌보시고(요한 10,11.14-15; 마태 14,13-14), 당신의 돌봄에 우리를 내맡기도록 가르치신다(마태 6,31-33; 10,29-31; 루카 12,24-31; 21,18). 이렇게 창조하고 지탱하며 모든 것을 이끄는 바로 그 말씀은, 육화 되신 후 당신의 섭리적 돌봄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직 이 교의의 가장 깊은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는 창조에 앞서는 아버지의 계획임을 주목할 때 비로소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에페 1,4-6). “영원한 성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과 세상의 예정은 하느님의 섭리 교의 전체에 결정적인 구원론적·종말론적 특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고대인들의 운명 개념과 다른 차원에 위치시킨다. 우리는 가차 없는 지평을 향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분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4. 섭리와 자유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다는 시각이 배제되면, 다른 물음들이 제기된다: 그것은 피조물들, 특히 자유로운 피조물들이 진정한 원인이 아님을 의미하는가? 모든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하느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느님께서 항상 활동하시는가, 아니면 가끔만 활동하시는가, 아니면 결코 활동하지 않으신다고 체념해야 하는가?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그것들의 존재에서도 활동에서도 보존하신다. 사물들은 단지 존속할 뿐 아니라, 시간 안에서 활동하며 효과를 낸다. 영적 피조물들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들의 행위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것들의 자유의 보증자로서 그것들을 지탱하신다. 따라서 성 토마스과 함께 하느님의 창조적 인과성과 피조물들의 인과성, 즉 제 1 원인과 제 2 원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각은 자기 질서 안에서 백 퍼센트 원인이며, 따라서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요한 15,5 참조), 우리의 행위가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임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 대립이 없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창조된 것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나치게 '참견하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마치 하느님께서 세상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는 것처럼, 창조와 섭리를 '현재주의적' 관념에 따라 혼동하는 접근들에 전형적이다. 이 이미지에 반대되는 것이 이신론적 관념인데, 이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혹은 기껏해야 위기의 순간에만 개입하신다). 현재주의가 창조 안에서의 신적 개입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신론은 신적 초월성과 그에 따른 창조된 것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전자는 창조와 섭리를 지나치게 연결하고, 후자는 지나치게 분리한다.

성 토마스에 따르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제 2 원인들의 활동을 이용하시면서 그것들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신다. 이는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를 그 목적으로 이끄는 데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므로, 어떤 의미에서 제 2 원인들은 섭리의 계획에 봉사한다. 피조물들, 특히 자유로운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 주장은 무엇보다 천사들에게 해당되는데, 성경은 천사들을 섭리에 특별히 참여하는 존재로 제시한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아”(시편 103[102],20). 또한 하느님께서 물질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맡기신 인간에게도 해당된다(창세 1,28 참조). 자유로운 존재로서 천사들과 인간들은 하느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그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세상 안에 악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5. 악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이끄신다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로운 물음에 단순한 답을 줄 수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총체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그리스도교 메시지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답이 아닌 요소는 없다”(교리서, 309).

따라서 선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 안의 악의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섭리가 사물들 안의 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하느님께서 악을 일으키지 않으시지만, 실패할 수 있는 제 2 원인들의 활동을 억제하지도 않으신다. 제 2 원인의 결과에서의 결함은 그 제 2 원인에 기인하며, 제 1 원인에 귀속될 수 없다.

악의 신적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악이 섭리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서, 악 자체로부터 선을 끌어내실 만큼 선하시고 능력이 있지 않으셨다면, 어떤 악도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존재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성 토마스는 하느님께서 악의 존재를 전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시는 것을 더 선호하신다고 단언한다. 악들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더 큰 선들을 얻으시는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속한다. 하느님께서 “모든 존재의 보편적 섭리자(*universalis provisor totius entis*)”이시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섭리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신다(교리서, 302, 307, 311 참조). “전능한 섭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악의 결과에서 선을 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교리서, 312). 모든 역사는 이 독법의 열쇠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며, 성 바오로의 말씀과 연결된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

악이 선보다 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이 승리해야 하고 실제로 승리한다는 자연적인 인간의 경향성을 뿌리 뽑기는 어렵다.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악의 경험은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의 활동에서 전능성과 선하심 사이의 긴장을 눈앞에 드러내는데, 이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신비로운 답을 받는다.

악을 우주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결핍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이다. 악이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능력의 이름으로 악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 실재성을 이유로 하느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의 진리는 그 궁극적 결과에서, 어떤 것을 박탈당하는 존재 없이는 결핍이 없다는 것을, 즉 그것을 지탱하는 선 없이는 악이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절대적 악은 불가능하다. 선은 악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하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답한다: “악이 존재한다면,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악은 선의 질서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악을 지닌 세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 악은 자신이 안에 있을 수 있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시력을 빼앗긴 누군가 없이는 눈뿔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역설 없이, 악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우발적 주체의 존재는 절대자의 존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6. 섭리와 그리스도교 삶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섭리에 관한 명시적인 구절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지혜서들에 있으며, 또한 역사-구원적 성격의 암묵적 구절들도 있다. 후자에서는 하느님께서 때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간극들, 즉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 안에 모순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섭리는 끊임없고, 실재하며,

지속적이다. 일어나는 것을 하느님의 섭리로 항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하느님께서선 선하게 보이는 것 안에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구약성경은, 욥이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잃은 후 아내에게 답하는 것처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발자취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욥 2,10).

섭리의 걸보기 양가성은,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1 코린 1,24)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답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 이 힘과 이 '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구원적 길 위에 있게 된다 [...]. 이렇게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 곁에 함께 걷는 하느님의 여정으로 드러난다”. 역사상 가장 큰 불의인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로부터, 하느님께서 가장 큰 선인 인간의 구원을 끌어내셨다.

이 고찰은 그리스도교 영성에 결과를 낳는다. 맹목적인 운명이 아닌 아버지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느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해방이다. 성인들의 증언은(교리서, 313 참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로마 8,28)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 섭리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 희망의 행위로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자유의 책임 있는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섭리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께 대한 자녀로서 신뢰의 태도로 이끈다: 받은 선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악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앞에서의 단순한 내맡김과 함께. 하느님께서 악에서 더 큰 선들을 끌어내시기 때문이다.

기본 참고문헌:

- 가톨릭 교리서, 302-324 항; 요약, 55-58 항.
- 요한 바오로 2 세, 섭리에 관한 교리 교육(1986년 4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 요한 바오로 2 세,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 신경에 관한 교리 교육 (I)*, Palabra, 마드리드, 1996, pp. 219-253.